

보도 일시	2021. 11. 15.(월) 14:00	배포 일시	2021. 11. 15.(월) 14:00
담당 부서	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	책임자	과장 이정은 (044-203-2831)
		담당자	서기관 전수련 (044-203-2832)

한국과 일본, 관광교류 재개와 활성화 협력 방안 논의한다 - 11. 17. '제35회 한일관광진흥협의회' 온라인 개최 -

문화체육관광부(장관 황희, 이하 문체부)와 일본 국토교통성(대신 사이트 테츠오)은 11월 17일(수) '제35회 한일관광진흥협의회'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양국 간 관광교류 재개와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.

한국과 일본은 관광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86년 '한일관광진흥협의회'를 출범하고 양국을 둘러싼 여러 상황에 관계없이 매년 꾸준히 열어왔다. 그러나 작년에는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순연한 바 있다. 올해는 양국 간 협력으로 관광교류를 재개하고 관광산업 회복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 온라인으로 행사를 마련했다.

이번 협의회에는 문체부 김장호 관광정책국장과 일본 국토교통성 관광청 가네코 도모히로 국제관광부장을 비롯해 양국 관광공사, 관광업계,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다. 참석자들은 양국의 정책 발표(중앙정부·지자체), 업계 발표 및 의견교환, 기조 강연, 온라인 여행 등을 함께하며 양국의 관광교류 재개·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할 계획이다.

양국의 정책 발표에서는 한국 문체부의 '한국-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 추진사례'와 일본 관광청의 '관광 부활을 향하여', 한국 인천의 '지능형(스마트) 관광도시 사례'와 일본 미에현의 '열린 관광 및 골프 관광'을 주제로 다룬다. 양국의 관광공사와 여행업협회는 한일 관광 교류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과 방안들을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.

이어 일본의 열린관광 사례(사회복지법인 코우지카이)와 한국의 관광 기술 기업 사례(H2O 호스피탈리티*)에 대한 강연과 관광시찰을 대체한 양국의 온라인 여행을 진행한다.

* 한국, 일본, 태국에서 기술 기반 종합 숙박을 운영하는 기업(관광 글로벌 챌린지 선정기업)

문체부 김장호 관광정책국장은 “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현저하게 감소한 양국 간 관광 교류를 재개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. 아울러 양국 방역 상황의 호전과 함께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 성과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.”라고 밝혔다.

※ 회의 종료 후(11. 17.) 합의문 배포 예정

